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재희  
석천학당 원장

하늘은 인간에게 일곱 가지 다양한 감정을 주었다. 기쁨, 분노, 슬픔, 공포, 사랑, 증오, 욕망이다. 이런 인간이 겪어야 하는 다양한 감정을 '희노애구애오욕(喜怒哀樂憂懼愛惡欲)', 칠정(七情)이라고 한다. 칠정은 인간의 네 가지 본성 사단(四端)과 함께 인간의 마음을 구성하는 기본 골격이다. 문제는 일곱 가지 감정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인간의 마음을 교대로 흔들어댄다는 것이다. 어느 순간 기쁨에 들떠 춤추며 놀다가도 화내면 슬픔에 젖어 비탄에 젖기도 한다. 공포와 두려움에 떨다가도 사랑과 연민에 어느덧 언제 공포가 있었나는 듯 잊어버리기도 한다. 인간은 왜 이렇게 다양한 감정의 기복으로 일상을 맞이해야 하는가?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 평정심을 유지하며 평온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일까? 감정의 조절과 평정은 생활의 중요한 주제이며, 죽을 때까지 나의 인생 전반에 걸쳐 던져야 하는 질문이다. '증용'에서 감정의 조절을 '중화(中和)'라고 한다.

슬픔(哀)이 상처(傷)로 남지 않기를

중화는 인간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면 삶의 중심축이 무너질 수 있기에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는 감정의 조절을 통해 인간의 생명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분노를 참으면 속으로 병이 들고, 분노가 지나치면 화로 변진다. 기쁨을 억누르면 답답해지고, 기쁨이 넘치면 음란함이 된다. 공포는 인간을 두려움에 떨게 하지만, 조절만 잘하면 긴장감으로 인간의 잠자고 있는 세포에 불을 켜게 한다. 욕망은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고, 탐욕으로 넘치면 인간의 삶을 파멸로 이끌기도 한다. 인간의 감정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곁들여야 할 대상이다. 야생마처럼 뛰어나는 마음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을 '조심(操心)'이라고 한다. 인간의 감정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 마음(心)을 잘 조종(操)할 수만 있으면 더 높은 단계의 삶을 살 수 있다. 마음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뛰게 만드는 것을 '방심(放心)'이라고 한다. 마음(心)을 놓쳤다(放)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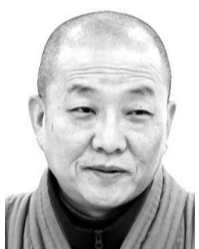
자가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지어온 이롭이다. 지도자가 감정 조절에 실패하면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국민이 도탄에 처한다는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 널뛰고 있다. 슬픔이 넘쳐 분노가 되기도 하고, 분노와 분노가 만나 갈등과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해결책은 없고 공방만 있고, 성찰은 없고 떠넘기기만 있다. 슬픔은 없고 상처로 가득하다. 지켜주는 어른은 없었고, 젊은 영혼들은 맥없이 쓰러졌다. 대한민국은 또다시 슬픔의 감정과 마주하고 있다. 많은 젊은 영혼의 꽃들이 채 피우지도 못하고 골목길에서 쓰러져 갔다. 꽃이 지는 것은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당국자가 좀 더 신경 쓰고 살피고 주의했더라면 꽃은 지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나라 안이든, 나라 밖이든, 그 어느 곳, 어느 시간에서라도 국민의 안녕과 생존을 위해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번 참사에 국민 모두 애도하며 슬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슬픔이 상처로 남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일이 또 반복된다면 슬픔은 상처가 될 것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오로지 희생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이 역시 상처로 남을 것이다. 슬픔이 상처로 남아서는 안 된다(哀而不傷). 슬픔을 통해 정화되어 더 높은 수준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그들의 희생이 의미를 지닐 것이다.

종교칼럼

이 가을에 풀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송현  
광주 중심사 주지

가을은 풀들의 키가 작아지는 계절이다. 지난여름, 사람 허리까지 울창했던 등산로 옆 풀들은 지저리도 말 안 듣는 10대 아들의 덤수룩한 머리카락 같아서, 마치 정글을 보는 듯했다. 한때는 '국립공원에서 저런 거 안 배고 뭐하나?'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보면 볼 수록 나무의 매력에 있어서 자주 자주 눈맞춤하는 맛이 있었다. 그러던 길다 정글이 어느새 얽잡히고 단아해졌다. 키는 무릎도 채 되지 않고 군데군데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확실히 나무들이 빼어나게 돋보인다. 자세히 보니 나무들도 눈에 띄게 말랐다. 조금씩 색도 바래가고 있다. 먼저 색이 바랜 뒤에 이파리가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번들번들하고 풍성하고 축축하던 여름은 가고 꺼질하고 아쉽고 메마른 계절이 찾아오고 있다. 그 와중에 풀들은 키까지 작아지니 풀들에게 가을은 참으로 잔인한 계절이다. 나무가 잎을 버려서 겨울을 난다지만 버릴 것이 없는 풀들은 목숨을 버려 다가오는 봄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 풀들은 사라지며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나무는 좋겠다. 버릴 것이 있어서, 아... 나는 왜 나

무가 되지 못했을까?'

사라진다는 것, 부서진다는 것, 풍성함을 잃는 것, 색이 바랜다는 것, 운기를 잃는 것... 모두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한 소회이다. 오직 1년만 사는 풀에게 '풍성함과 색과 운기를 잃는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풀들에게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다. 다시는 함께할 수 없는 이별을 의미한다. 다만 수십 년을 사는 인간이 1년을 사는 풀을 대하며 그렇게 느낄 뿐이다.

삶이 1년을 넘지 못하는 풀에게 내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풀이 운화를 믿는다면 다음 생엔 더 좋은 땅에서 더 튼튼한 풀로 태어나길 바랄 것이다. 나무는 풀들의 여러 생애 해당하는 시간을 살면서 풀들이 나고 죽는 것을 순하게 봐 오고 있다. 이런 사실을 풀들은 꿈에도 알지 못할 것이다. 나무는 풀들의 다음 생, 또 그 다음 생, 또 그 다음 생을 무덤덤하게 지켜본다.

풀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다음 생이 나무에게는 그저 내년일 뿐이다. 설령 풀이 같은 장소에 다시 태어나 작년의 그 나무를 보더라도 풀은 전생의 그 나무임을 알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풀은 나무를 자신과 같은 풀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자신들과 같은 시간 속의 삶을 사는 아주 멋지고 크고 단단한 풀로 여길 것이다. 자신에게는 수십 번의 생애 해당하는 시간을 저 나무가 살아 가고 있음을 풀은 알지 못할 것이다.

4차원을 사는 우리들은 한번 지나간 강물에 두 번 다시 발을 담글 수 없다. 우리들에게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반면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지금 현재

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불안해한다.

N차원에서 사는 존재는 오직 N-1차원까지만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4차원에서 살기 때문에 3차원까지만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4차원의 존재인 우리들은 시간을 인식하지 못한다. 만약 5차원에서 사는 존재가 있다면 그들은 시간까지 인식할 수 있다. 마치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를 듣듯, 그렇게 시간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다. 4차원을 사는 우리들의 생각처럼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일방적인 선형이 아니라면, 다음 생이란 것은 도대체 뭘까? 5차원 같은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다음 생, 또 다음 생, 또 그 다음 생...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일 년만 사는 풀이 수백 년을 사는 나무의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듯, 5차원의 삶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차원의 한계를 넘지 못할지라도, 사고는 나름의 방식으로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다. 오래 전, 스티븐 호킹의 저서 '시간의 역사'를 본 적 있다. 문득, 왜 스티븐 호킹이 책 제목을 '시간의 역사'로 지었는지 궁금해진다. 어쩌면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븐 호킹 같은 이는 차원을 뛰어넘는 사고를 했는지도 모른다. 마치 풀의 물리적 한계를 생각만 오로 뛰어넘어 어떤 풀이 나무의 존재를 상상하듯 말이다. 가을의 끝자락엔 흑흑한 겨울이 닥치고 겨울을 지나면 다시 찬란한 봄이 반복된다. 마침내 가을이다. 이 가을에 풀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기고

죽이는 약, 살리는 약



양관수  
소설가

석촌리(고흥군 과역면)에는 내가 가꾸는 밭이 있다. 두 필지인데 뒷밭이라기엔 좀 넓고 농장이라 하기엔 작다. 주말농장으로 쓰려 마련했다. 그 밭에 나는 매주 일요일을 기점으로 하루나 이틀을 석촌리에서 보낸다. 이제 석촌리는 나의 일상이다. 마을에는 경기권에 서 사업하다 귀농한 사장님도 두 분이나 산다. 토박이인 김 선생도 머문다. 김 선생은 범어(산스크리트어)와 타밀어로 이어지는 우리말을 연구한다. 또 액비(풀로 만든 액체 퇴비)와 생약에도 조예가 깊다. 석촌리에 들으면 나는 밭일을 뒤로 미루고 김 선생을 찾았다. 그가 집에 머물다 나를 반갑게 맞았다. 내가 그에게 하소연했다. 나는 한여름 설사에 시달렸다. 시작은 7월 15일 즈음이었다. 이비인후과 약을 먹은 뒤부터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나는 여름이라 그러다며 찬 음식을 먹지 않는 등 식이요법에 신경을 썼다. 한 달쯤 시간이 흘러도 차도가 없었다. 나는 내과로 달려가 지사

제를 처방받아 먹었다. 그 와중에도 이비인후과 약을 끊지 않았다. 지사제는 먹을 땀 듣는 척하더니 나중에 아예 효과가 없었다. 나중에 종합병원에서 지사제를 처방 받았다. 먹을 때뿐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다 한 달쯤 더 지냈을 때 비로소 나는 이비인후과 약이 맘에 걸렸다. 인터넷에서 그 약들을 찾아 검색해보니 네 알 중 두 알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었다. 체질에 따라 설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는 과민대장증후군에 자주 시달리는 체질이다. 그만큼 설사에 민감했다. 나는 바로 이비인후과 약을 끊었다. 그래도 설사는 약간의 차도가 있을 뿐 멈추지 않았다. 다시 지사제를 먹어도 듣지 않았다. 두 달 동안 설사를 하고 나니 몸이 지치기 시작했다. 주변에서 서울 큰 종합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들렸다.

나는 병원 약을 더는 먹고 싶지 않았다. 다른 방법을 찾고 싶었다. 내가 더 살아갈 인연이라면 설사 잡아 줄 약이 나타날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들었다. 그때 떠오르는 사람이 석촌리 김 선생이다. 그가 내 말을 듣더니 바로 '이질풀'을 추천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앞서서 근처 산기슭으로 나섰다. 풀숲을 헤치며 이질풀을 뜯기 시작했다. 난 아무리 봐도 다른 풀이랑 구별이 안 되는 약초였다. 그가 호미와 삽을 들고 제 일인 것처럼 언덕을 누비며 뿌리까지 캐거나 풀을 뜯었다. 채취한 약초를 그러모으니 20리터 비닐봉지에 가득 찼다. 나는

집으로 약초를 가져와 씻고 말린 뒤 잘게 잘라 습기 차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담았다.

나는 2리터 정도 물이 끓자 3분의 1컵 남짓 말린 약초를 스테인리스 차관에 담아 우려냈다. 알맞게 식혀서 미지근할 때 한 컵 마셨다. 속이 편했다. 병원 약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설사가 멈추진 않지만 병원 약을 먹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다. 아랫배에 안장감이 드는 듯했다. 2리터 우린 물은 하루 정도 먹기에 적절한 양이었다. 말린 약초를 차관에 넣어 초벌, 재벌을 했다. 물맛도 좋았다. 어떤 차에 뒤지지 않는 맛매를 풍겼다. 약초 우린 물을 마신 지 5일째 되자 설사가 잡혀가는 걸 느꼈다. 15일 즈음 되자 정상으로 되돌아온 듯했다. 나는 두 달 만 낱수를 설사에 시달리다가 이질풀을 우려 마시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다.

장자에 무용지용(無用之用)이라는 말이 있다. 나는 자주 과민대장증후군에 시달린다. 그런데 이번 여름 설사병을 겪으면서 이질풀이 좋다는 걸 알았다. 쓸모없음의 쓸모 있음이다. 앞으로는 이질풀을 떨치지 않고 우려 마시려다. 이제는 병원 약이 두렵다. 가능한 안 먹고 싶다. 약이 삶을 헤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더니, 이질풀을 추천한 석촌리 김 선생에게 맛있는 음식이라도 대접하려는데 그는 채식주의를 실행 중이다. 삶은 모순으로 둘러싸여있다.

社說

투자 심사 반려 대형 사업들 철저히 보완해야

광주·전남 지자체가 추진하려는 대규모 지역 발전 사업들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무더기 재검토·반려 판정을 받았다. 이들 사업은 향후 규모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적기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열린 중앙투자심사 위원회에서 광주시가 제출한 일곱 개 사업 중 한 개를 반려하고 나머지 여섯 개 사업 조건부 승인했다. 또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올린 열한 개 사업 중 네 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구하고, 두 개는 반려했다. 중앙투자심사는 200억(시군)-300억 원(시도)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중부·과잉 투자를 막기 위한 검증 절차다.

광주시가 올린 사업은 K-헬스(Health) 국민의료 인공지능(AI) 서비스·산업생태계 구축(428억 원), 경찰청사~사무로 도로 토지 비축 사업(372억 원), 총 1100억 원 규모의 AI 2차·3차·4차 펀드

조성 등이다. 또 전남도와 일선 시군은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425억 원), 수소도시 조성(광양·400억 원), 북부 노인복지타운 건립(순천·295억 원), 땅갈 해남 식품특화단지 2지구 조성(243억 원) 등에 대한 심사를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가운데 탄소중립 에듀센터와 식품특화단지 조성 등에 대해서는 경제성과 부지 적정성 확보를 조건으로 재심사를 받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하면 경찰청사-사무로 간 도로 개설과 여수 시립박물관, 광양 소재과학관 등은 아예 반려했다.

이번 투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린 사업들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지역 발전의 핵심 프로젝트들이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재검토·반려 판정을 받은 사업들이 재심사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요구한 조건들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 정부도 심사 과정에서 경제성만 따질 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력난 대불산단... '고용 위기' 지원 종료 대책을

목포·영암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올 연말로 끝나면서 대불국가 산업단지 비롯한 지역 조선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불산단이 위치한 목포시와 영암군은 지난 2017년 조선업 불황에 따른 고용 위기로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상관마저 침체되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두 지역을 지난 2018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고, 이후 네 차례 추가 지정을 통해 올 연말까지 연장됐다. 덕분에 협력 업체들은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내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근로자들은 직업훈련생계비 용자·생활안정자금 용자 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한데 연장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데다 관련 법 개정으로 추가 연장도 불가능해져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그동안 추가 연장의 근거가 된 고용노동부 고시(대통령령(시행령)으로 격상되면서 지정 기간 연장이 '1년 이

내 범위에서 3회까지'로 제한된 탓이다.

이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하청 업체들이다. 지난 5년간 유예 혜택을 받아온 4대 보험료를 내던 초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목포·영암 지역 183개 조업업체들이 상환해야 할 보험료는 최소 수억 원씩으로, 전체적으로는 수백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업은 지난해부터 수주량이 급증하면서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협력업체들의 인력난과 경영난은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보험료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 거래 제한 등 다른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 업계에서는 조선업 특성상 수주 개선 효과가 현장까지 도달하려면 최소 1~2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정부는 목포·영암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재연장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다른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이탈리아의 남부 도시 나폴리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 첫째는 세계 3대 미항으로 꼽히는 나폴리항이며, 둘째는 폼페이를 품은 베수비오 화산. 그리고 세 번째는 '나폴리의 신' 축구선수 마라도나다.

흔히 11명이 뛰는 축구에서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고 한다.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의 골잡이 홀란은 11경기에서 17골을 넣는 괴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고국 노르웨이를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올려놓지 못했다. 올해 발롱도르를 수상한 벤제마가 빠진다고 해도 프랑스는 여전히 강력한 월드컵 우승 후보다.

나폴리의 보물

그러나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있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컵을 들어 올린 원인은 단 하나. 혼자 힘으로 팀을 세계 최강으로 끌어올린 마라도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월드컵이 끝난 후 이탈리아 세리에A의 나폴리로 이적했는데, 성공을 모아 이적료를 낸 팬들에게 보답하듯 스쿠데토(세리에A 우승팀 유니폼에 새기는 문장)를 안겼다. 팀 창단 이후 60년 만의 첫 우승이었다. 당시 유럽 최고팀을 상정하는 유럽축구연맹(UEFA)컵도 나폴

리에 선물했다. 2년 전 마라도나가 숨지자 홈구장 산 파올로는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스타디움'으로 이름을 바꿨다.

올해는 마라도나 스타디움에 새로운 '보물'이 생겼다. 센터백으로 입단해 나폴리를 리그 1위로 이끈 김민재 선수다. 뛰어난 수비로 경기당 0점대 실점을 기록하고, 세트피스 때 공격에 가담해 골까지 넣으며 지난 9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세리에A '이탈의 선수'에 뽑히기도 했다. 나폴리 팬들은 김민재를 '철벽' '철기둥'이란 별칭이 붙었다고 부른다. 카타나치 오(빛장 수비)로 유명한 이탈리아에서 김민재는 가장 뛰어난 수비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민재에 대한 호평이 반가운 것은 카타르 월드컵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대표팀 최고의 '항' 손흥민이 안면 골절 수술을 받아 최악의 경우 월드컵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충격 속에 대표팀 '수비의 핵심' 김민재의 비중은 더욱 커졌다. 36년 전 마라도나처럼 소속팀은 물론 국가대표팀에서도 '보물' 같은 존재 김민재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한다. /유재만 편집담당국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본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경 지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 남 본 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